복음 통한 가짜뉴스 대처법

(시편 12:1~8)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 통한 가짜뉴스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 통한 가짜뉴스 대처법'

요즘 가짜 뉴스(Fake News)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가짜 뉴스가 요즘 들어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SNS를 통한 가짜 뉴스가 국지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올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가 있습니다. 백제의 무왕이 어릴 때에 신라 26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신라에 와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성안의 아이들에게 선심을 쓰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선화 공주가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서동의 방을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니 소문이 대궐 안까지 퍼지게 되었고 왕은 마침내 공주를 귀양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서동이 귀양을 가는 선화공주의 길을 막고 설득하여 백제로 돌아가서 서동은 무왕이 되었고 선화공주는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백제의 왕비가 되었으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선화공주로서는 요즘 말하는 흑색선전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흑색선전은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단체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근거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흑색선전을 '마타도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에서 투우사(bullfighter)를 말하는 '마따도르(Matador)'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투우사가 소를 데리고 놀다가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에 칼을 깊이 찔러서 소를 죽입니다. 이러한 투우사의 모습에 비유하여 흑색선전을 마타도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선 때에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취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점을 청산하겠다고 특별히 선거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문재인 지지층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투우사의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미국 대선 때에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했는데 대통령 선거 3개월 전부터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1~20위까지의 가짜 뉴스와 유명 매스컴에서 등장했던 진짜 기사의 조회 수를 조사했더니, 가짜 뉴스를 870만 건을 조회한 반면 매스컴에서 소개된 기사들은 740만 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힐러리 클리턴이 이슬람 과격단체 IS에게 무기를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가 유력지의 진짜 뉴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뉴스는 믿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할까요? 2008년에 한 국회의원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기사가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그것으로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었고 그로 인해 당선된 사람이 강용석 의원이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그 뒤로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말려들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흑색선전은 큰 문제이지만 진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알려진 대형 매스컴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세력으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짓말 친화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 거

짓말이 굉장한 친화력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IS에게 무기를 팔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서는 집을 형성합니다. 내 마음이 그 말 안에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된 말로 만들어진 집이 마음에서는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짓이 어떻게 세상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위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울 앞에 선 모습은 우주 앞에서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티끌과 같은 인간의 마음만큼은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이 자기 속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마음을 지구 위의 수많은 대상으로 채울 수 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에 넘어갔습니다.
‘돈이 나를 만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평생을 돈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살아갑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면 쪼아대고 괴롭게 하고, 돈이 많은 상황에서도 더 벌어야만 한다고 욕심을 내게 합니다. 남이 돈을 벌었다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형제와도 돈을 두고 싸웁니다. 결국 돈이 최고라는 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 말만 없었다면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작동하는 중이라면, 밖에서 들려오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친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뉴스보다도 거짓말 뉴스에 더 환호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의인들이 사회현실을 보면서 겪는 고난에 대한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탄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고난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패역한 세대와 악인들의 득세나 횡행함의 실상을 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다윗이 보는 세상이 나타납니다. 1절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는 구절대로 온 세상이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를 거론하는데 다윗의 영성적 천재적인 견해가 돋보입니다.
그 원인을 말(언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첨

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의인이 고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말에 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하는 말과 같은 것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마음이 거하는 집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실제와는 상관없이 마음 안에 들어온 말에서 실제를 느낍니다. 말은 사람을 허구 속에서 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비시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한 배경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곧 다윗이 확신했음을 뜻합니다. 세상은 거짓말과 흑색선전이 범람하여 우리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공백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하고, 유일한 진짜 뉴스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자기계발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마치 그대로 하면 내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거나 적어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에만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처럼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말과,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를 전전하다가 굴에 숨었을 때에,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볼일을 보는 사울을 찔러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

라고 사울이 굴에 들어와 볼일을 보게 하셨다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던 측근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아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을 도와서 나중에 한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리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지만, 본문에서의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으로 기록된 모세오경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삶의 현장, 거짓말을 하는 삶의 현장,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삶의 현장, 자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생각 안에 머물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내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뉴스를 봐도 거짓말투성이입니다. 특정 언론이 개혁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들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돈이 들어 있고 정치가 들어있고 권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이야기이고 심지어 윤리학자와 도덕 선생님의 이야기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면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배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나 자신을 거짓말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일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자녀의 모습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알고 계신 자녀의 모습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자녀는 거짓된 말들의 집합 속에서 혼자 오해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뉴스를 들을 때에나 나와 관계된 일들을 생각할 때에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진짜 뉴스는 오직 '내가 십자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에 세상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겠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뉴스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뉴스뿐입니다. 오히려 뉴스에서 말하는

이 나라와 국제정세 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들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고 집을 형성해서 갇히게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첫째 뉴스는 지금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말씀의 총화이십니다. 세상의 진실은 언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을 집 삼기 위해 뚫고 들어오려는 가짜 뉴스를 배척해야 합니다. 그 뉴스들에 지배당할 때에 내 마음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해당되는 첫 뉴스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뉴스가 들리는 이 세상, 가족이 함께 사는 이 세상, 직장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뉴스이자 진실 된 뉴스이고 굿 뉴스입니다. 이 굿 뉴스에 충실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거짓으로 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는 말 한 마디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의 증거는 어떤 뉴스가 들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로 인해 누리시는 기쁨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과 말씀에 머무는 것이 살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온통 진짜라고 믿는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말도 문을 열고 받아들여 내 마음에서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서의 뉴스만을 붙잡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사는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